



양양소식

군정방침

I. 활기찬 지역개발
 I. 독특한 관광진흥
 I. 풍요한 복지실현
 I. 찬란한 문화창달
 I. 질 높은 자치구현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강원도내 수해 지역 시·군 자치단체가 항구복구 관련 공사발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18일부터 소규모 물량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배정 등 구체적 기준안 마련에 들어갔다. 수해 이전인 지난 8월31일 관내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분리발주를 포함한 항구복구 발주건수는 모두 1천여

건으로, 사업비는 2천7백여억원에 이른다.

군은 이에 따라 발주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외지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공업체의 건설시공 능력평가 등 구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발주에 따른 업체간 경쟁과 의혹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 적격심사 기준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는 한편 군은 이번 실사를 통해 참여업체의 △시공능력 △실적평가 △기술력 등 실질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0억 미만 공사에 따른 발주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기타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와 수해 당시 장비대여 업체, 수해복구 공현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현재 관내 건설업체는 전문 78개, 일반 1백4개 등 모두 1백82개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군은 오는 12월10일 이전까지 수해복구 관련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폐광지 종합휴양 관광단지 개발추진" - 서면일대 타당성 용역보고회... 미래수익형 테마관광지 조성-

국내 최대의 철광 생산지로 지난 95년 폐광된 이후 퇴락의 길을 걷고 있는 양양군 서면 장승리 일대를 종합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형 복합 청사진이 제시됐다.

군은 지난 8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상황실에서 이진호 군수와 박용길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서면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 철광 폐광지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갖고 장승리 일대 폐광지역을 건강종합 휴양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발표



<사진설명> 지난 8일 개최된 양양서면 폐광지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에 따른 용역보고회에서 이진호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보고회를 청취하고 있다.

추진해 왔다. 또한 건강종합 휴양지로의 개발을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과 연결된 지형과 지세 △서고동저형의 지세 형성 △해양성 기후와 적당한 기온 △완만한 경사에 따라 양양남대천으로 유입되는 수계 등 최적의 자연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하 폐광도에서 유출되는 건강에 유익한 자화수 등 잠재자원 풍부 △폐광시설을 이용한 체험장 운영 △토지이용 현황 유리 △오색 케이블카 개설시 새로운 관광명소 기대 등 인문화경적 조건도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같은 상시적 환경조건을 이용한 서면 장승리 폐광지 조성사업은 인접 관광지의 방문객과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등 레포츠를 주제로 구성되는 소규모 휴양단지 개발과 풍부한 자철의 건강 효용성과 수자원, 설악산 약초를 테마로 하는 건강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개발로 설정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용역보고회를 통해 발표된 보고서는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공항개항 등 교통여건 호조, 기존 설악권 관광지와의 원활한 연계 전략이 조성사업의 강점으로 꼽혔으며, 개발이 제한되는 남대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취락지 형성과 사업지내 매력요소 부족이 조성사업의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달 말경 양양 철광 종합휴양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서면 장승리 일대의 폐광지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했다.

이날 용역보고서는 '미래성과 수익성, 4E(교육, 즐거움, 주민참여 및 만족, 환경보전)가 조화된 테마 관광지' 조성을 모티브로 양양 자철광 건강 종합휴양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철광박물관과 재활용공원 등 휴양문화시설과 빌라콘도와 유스호스텔의 별장형 숙박시설, 테마공원, 상가, 습지 생태공원, 수변공원, 순환열차를 비롯한 기본시설과 지연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을 갖춘 소극적 개발방식을 포함해 자화수를 이용한 대규모 물놀이 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적극적 개발방식이 개발모델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군은 자철광 지역의 폐광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양양국제공항 개항, 영동·동서 고속도로 추진 계획 등 빠르게 변하는 교통여건의 개선에 따라 관광패턴이 변한다고 판단, 서면 장승리 폐광지 일대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표로

"2003년도 주요시책보고회 개최"

- 15개 성과소와 읍면별...인구유입책과 맨발공원 조성 등 특수사업 눈길 -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군수실에서 기획감사실 등 15개 성과소와 읍면별로 2003년도 일반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주요시책 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인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한 일반과 신규, 특수 및 경영수익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보고한 △기획감사실은 양양군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5개 분야에 대한 일반시책사업과 낙산집단지원지구내 맨발공원 조성, 연어상 건립 등 9개의 특수시책사업을 보고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달 발족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16개 신규사업과 인구유입방안 조사용역을 비롯한 9개 특수시책사업을 보고했고 △재무과는 일반시책에 이어 지적도면 전산화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복지과는 매호정화사업을 포함한 일반사업과 공설묘지 조성 등 9개 사업을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했고 추진 계획이며 △농림경제과는 송아지방 지원사업과 축사신축 지원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고했다. 축제기획팀을 흡수한 △관광문화과는 오산리 선사유적전시관 건립과 진전사 복원사업 등 일반사업과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을 비롯한 24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천연기념물 박제제작 등 특수시책사업과 낙산행 정봉사실 임대사업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을 보고했다. △지역개발과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7개 신규사업과 물치지구택지개발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과는 양양교 설치공사와 양양군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3개 신규사업과 9개 계속사업을 보고했다. △해양수산과는 어촌종합개발사업외 23개 사업을 일반시책사업으로 정하고 전복침하식 양식사업과 동산항 부대시설 용지조성사업 등을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펼칠 예정이며 자율관리어업 시범어촌계 육성사업과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했다. △보건소는 진료사업을 포함한 34개의 일반사업과 노후보건기관 신축정비, 거동불편노인 목욕사업, 방역소독 확대 실시 등 3개 신규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과 신규시책사업에 이어 산책로 개설 특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는 26개 일반사업과 영농정보 모니터 운영 등 11개 신규시책사업을 추진할 계

확인 가운데 농경유물 전시관과 유망과수 모목생산 보급 등 다양한 경영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국 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은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추진 사업과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등 일반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자치지원단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지원봉사자 인력은행 운영 등 3개 일반시책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의 정 소 식

"양양군의회 의정동우회 창립"

- 이상원시 등 전·현직 21명 참여... 지방의회발전 적극 노력 -



<사진설명> 지난 4일 양양군 의회 의정실에서 개최된 양양군의정동우회 창립총회에서 김두원의사과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양양군의회(의장 박상형)는 지난 5일 설악권 3개 시·군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현직 군의원 21명이 참여하는 '양양군의정동우회'를 창립하고 지방자치제 발전과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도모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이날 의정동우회 창립총회를 갖고 제2대 양양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상원 전의원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안태현 전의원, 이사에는 박상갑, 박철수, 고용달 전의원, 감사에 김성환 전의원을 선출하는 등 정관제정과 운영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지방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문역할이 예상되는 양양군의정동우회는 지난 4월 설립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3대 양양군의회 의장을 지낸 황봉을 전의원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양양군의정동우회는 이번 창립에 따라 전·현직 의원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현재 안고 있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창구역할을 통해 의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의회 박상형의장은 "그동안

안 군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 의원님들과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제4대 양양군의회가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의정동우회 창립이 지방의회 발전의 대표적 모범사례가 되도록 현역 의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양양해맞이축제'희망기원'"

- 12월31일~2003년 1월1일 ... 수해극복 희망축제로 -

2003년 새해는 양양에서 '해맞이 하세요.' 군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3년 해맞이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태풍 루사로 인해 매년 펼쳐진 연어축제가 올해 전면 취소되고 양양송이축제도 소규모로 축소 개최되는 등 우리지역 특유의 볼거리 축제가 차질을 빚었으나, 2003년 해맞이축제는 오는 12월31~2003년 1월1일까지 이틀간 대규모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해맞이축제는 주무대인 낙산해수욕장과 낙산사를 비롯해 하조대해수욕장, 설악산 대청봉 등에서 수만명의 해맞이 인파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신묘제례, 소망기원 촛불밝히기, 모닥불지피기, 소망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져 수해의 아픔을 달래고 새해 희망을 기원한다. 특히 지난 해맞이축제 당시,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겨울 추위를 잊고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떡국 나눠주기 행사는 수해복구에 온정을 보내온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주무대인 낙산해수욕장 특설무대는 사물놀이와 불꽃놀이, 전통무용, 관악연주, 댄스공연 등 화려한 무대로 꾸며지고 하조대 해수욕장에서는 새해소망 엽서나누기, 지신밝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10여개 행사가 이어진다.

윤여경 관광기획담당은 "축제의 고장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양양군이 수해로 인해 그동안 연어와 송이축제가 위축됐지만 이번 해맞이 축제를 통해 수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현면 석교리 우수마을 선정 "

-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진지... 마을사업비 5억 지원 -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따른 모범마을 선정 평가단의 실사가 끝난 가운데 군이 추천한 강현면 석교리가 지난 14일 우수마을로 최종 확정됐다.

강원도가 실시한 200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선정 결과 강현면 석교리는 환경분야와 소득분야, 정신분야, 행정의 관심도 등 4개 부문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모범마을로 선정됐다.

돌의 고향으로 유명한 석교리는 75세대 2백27명의 주민들 모두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과 관련, 올해 초부터 단합된 모습으로 자연 친화적 마을관리 휴양지 개발에 적극 나섰고 대규모 표고버섯 재배단지과 한우단지 조성을 통해 고소득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친환경 퇴비생산 추진단과 환경감시대, 작목반, 자율방범대, 청소년 선도반 등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관련 지원단체들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변화하는 석교리를 이뤄낸 것이다. 특히 김문광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비롯해 마을 홈페이지 자체개발에 따른 대외적 홍보, 양양군과 강현면사무소 등 자치단체의 헌신적 지원을 바탕으로 보여진 행정의 높은 관심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석교리는 이번 수해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중단없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표고단지 복구와 마을하천 정비 등 혼연일체로 응급복구에 나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겼다.

석교리 김문광리장은 "지난 3년에 걸쳐 주민들 모두가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추진한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석교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돼 너무 기쁘고 모든 공로는 주민들의 몫"이라며 "수해복구에서도 보여줬듯이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선진농촌마을로 지속적인 마을발전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최종선정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19일 열린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며 석교리는 마을지원 사업비 5억원을 받게 된다. 강현면은 석교리 선정을 포함해 지난해 전진2리 등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추진으로 2개 마을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으며 모범지역으로 위상을 굳혔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대책마련 촉구 "

-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건의문 채택, 관계부처에 발송 -



강원도 18개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가 지난 8일 오전 11시 양양군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의장단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촉구하는 대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3당대표, 건설교통부, 한국공항공단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도 시·군의회 의장단은 건의문에서 "3천5백67억원의 예산을 들여 5년간의 대역사 끝에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이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항 7개월이 지난 현재 국제노선 잠정 중단과 국내노선 감편운항, 아시아나 항공운항 전면중단 등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동북아 허브공항과 남북연결 공항의 전초기지로서 개항된 양양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설명> 지난 8일 양양군청에서 개최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진호 양양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의장단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동북아 전초기지로서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국내 노선의 안정적 취항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에 협조를 구한다"며 "이를 위해 아시아나가 포기한 서울노선을 대한항공에서 증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 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모객지원과 탑승객 요금 지원, 적자보전 약속 등 정기노선 개설을 위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노력하고 있으나 중

양부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개항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의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장단은 특히 “중국 상해노선의 경우 탑승객 비율이 현저히 낮고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활성화에 모든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야한다” 촉구했다.

"사랑의 자장면' 일출부대 위문"

- 양양지역 4개 적십자봉사회... 6백그릇 전달 위로 -



<사진설명> 일출부대 장병들이 지난 3일 양양지역 적십자봉사회가 마련한 사랑의 자장면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날 일출부대 위문행사에는 양양, 현산, 황매화, 남천 등 양양지역 4개 적십자봉사회 회원 1백여명이 참가해 밤새도록 직접 준비한 자장면 6백 그릇을 중식으로 제공하는 훈훈한 정을 나눴다.특히 양양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현산봉사회와 황매화 봉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개미반점 최명균씨와 인생관 박현숙씨는 이날 자장면 재료와 노력봉사를 자청해 자원봉사의 의미를 높였다. 한편 양양지역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대한적십자사에서 보내온 동절기 난방기구 등 수해관련 의연품을 관내 수재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영북지구(회장 이재운) 양양지역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3일 태풍 루사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양양관내 수해복구에 노력한 일출부대를 방문, 장병들에게 '사랑의 자장면' 6백 그릇을 제공하고 위로했다.이

" 외국인주부 위로간담회 "

- 1일부터 5일까지...이진호군수 환담 -



군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에 거주하는 중국,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외국인 혼인주부 51명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비롯한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고 위로했다. 사진은 이진호 양양군수가 송암리 은하가든에서 참석한 외국인 주부들과 환담하고 있는 모습

" 연어채포장 관광명소 각광 "

- 내수면연구소 채포작업 현장체험... 주말 3~4백명 몰려 -



<사진설명> 양양내수면연구소 직원들이 지난6일 오전 9시 암.수로 구분된 연어들이 채란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몽둥이로

연어방류 사업을 위한 채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양양 내수면연구소의 연어 채포장에는 주말이면 3~4백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등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양양내수면연구소는 하루 평균 1백여 마리의 연어채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채란과 부화 등 방류사업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기 위한 수백명의 관광객들이 대거 이곳을 찾고 있다.

이처럼 내수면연구소의 연어 채포장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의 연어에 대한 인식확산과 올해부터 채포장의 위치를 내수면연구소 앞으로 옮기면서 예전보다 접근과 주차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최대 연어방류 사업을 맡고 있는 양양내수면연구소 직원들의 연어 알리기를 통한 지역 이미지 높이기 등 헌신적 노력도 한 몫 거두고 있다.연어 채포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연구관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잠깐 기절시킨뒤 자동 이송기계에 나르고 있는 모습

투입돼 길이 50~80cm, 4~5kg에 이르는 연어 1백여 마리의 채포를 위한 포획작업에 들어가고 입 모양을

통한 암·수 선별 작업이 끝나면 채란을 위한 컨베이어벨트의 이송이 시작된다. 채란장에 올라와 채란을 마친 연어는 뇌하수체 검사를 위한 연구원들의 검사를 받게 되며 연어 채포와 관련한 이같은 과정들이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현장체험 교육의 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연어채포장 근처에 마련된 '연어 숯불구이 판매장'에 모여 채란 이후 연어를 재료로 만든 연어 즉석구이 등 별미를 맛보며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자연학습 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내수면연구소의 연어 채포장은 올해 작업이 종료되는 11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1만명 이상의 연어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갈 전망이다. 홍관의 연구관은 "연어채포와 관련해 고질적인 문제점은 포획금지기간 전후로도 많은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 모천을 올라온다는 것"이라며 "연어 채포장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연어고장의 주민들 또한 연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동해고속도 시설물 명칭변경 요구 "

- 양양~속초구간 관련 한국도로공사에 요청 -

- 현북면 남양양IC → 하조대IC, 강현면 설악IC → 낙산IC로 -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구간 노선과 고속도로 IC 등의 관련 시설물 위치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양양군은 추진중인 IC를 비롯한 시설물의 올바른 명칭사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명칭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현남면 지경리까지 개통된 동해고속도로의 지경리~속초시 도문동까지 37.21km 구간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2003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관련 시설물들이 사실상 확정됐다.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구간은 현남면 지경~인구~현북면 말곡리~서면 북평리~강현면 물갑리~속초시 동문동~노학동~시·군 경계지 등 총 43.61km에 이르며 4개의 출입시설과 휴게소 1개소가 위치한다.

동해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할 양양IC는 서면 북평리 마을 뒷산에 위치할 예정이며 현북면 말곡리에는 △남양양IC와 남양양IC교, 임호교 강현면 회룡리는 △설악IC교, 설악IC, 도룡1교, 도룡2교 등이 설치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양양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과거 주문진IC 사용논란에 따른 동해고속도로 시설물 명칭사용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실적 명칭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명칭변경 계획안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군은 명칭변경 계획안에서 현북면 말곡리와 강현면 회룡리에 설치될 IC명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현북면 말곡리 남양양IC는 하조대IC로, 남양양IC교도 남양양IC교, 임호교는 말곡교로 △강현면 회룡리의 설악IC는 낙산IC로, 설악IC교는 낙산IC교, 도룡1교와 2교는 회룡1교와 2교로 각각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 추경예산 4천6백여억원 원안통과 "

- 양양군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 농어촌폐기물처리장 해결 실마리 -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양양군의회 제96회 임시회가 지난 6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처리와 양양군폐기물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양양군이 제출한 4천6백여억원의 추가경정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인구택지 부지매각 및 동호지구 공유재산 매각 수입 48억 6천여만원 등 올해 당초예산 1천4백15억원보다 3천1백93억9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천3백10억원, 특별회계 2백98억원이며 수해관련 순수복구예산은 3천89억5천2백87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양양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석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의 원안 통과는 수해복구로 인한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특히 농어촌도로 등 공공용지에 편입돼 불이익을 당한 수재민들이 민원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급한 과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양양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표류돼왔던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 수해피해 측량비 50% 감면 혜택 "

- 양양군 농경지와 주택대상... 유실·매몰 1천2백14ha -

수재민들의 복구비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 농경지와 택지에 대한 경계 및 분할 측량비를 50% 감면한다. 군은 수해를 입은 관내 농경지와 주택 가운데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이 필요한 대상은 모두 5천1백여 필지로 1필지당 평균 20여만원의 측량비가 소요돼 총 10억원 가량이 측량비로 추정되는 등 그동안 수재민들의 측량 복구비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협의를 통해 수해관련 농경지와 주택의 측량비를 50% 감면하기로 하고 군청 1층에 측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이번에 군이 추진하고 있는 측량비 감면은 기존 1천평의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의 경우, 그동안 소유주가 부담하던 46만원의 절반인 23만원이 부과돼 수해민들의 복구비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수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개답지 피해를 입은 서면 수리와 현북면, 현남면 지역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해관련 측량감면을 원하는 수재민들은 읍면에서 발급하는 수해피해사실 확인서와 해당 토지의 지번, 측량수수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군은 수해피해 토지에 대해 우선 측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일 했어요!!!



<용천마을 도서관>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서면 용천리 마을 도서관 개소식에 참석한 이진호 군수가 명패를 달고 있다.



<호국영령추모제> 이진호 군수가 지난 15일 현북면 기사문리 38선 휴게소에서 열린 호국 영령 추모제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북분리 마을회관 준공>현남면 북분리 마을회관경노인회관 준공식이 지난 14일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한복 전달> 양양고 10회 동문들은 지난 19일 부군수실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전해 달라며 방한복 40벌을 정연덕 부군수에게 전달했다



<오라차차 옷놀이> 우리지역 노인들이 지난 15일 노인회가 주최한 노인위안 잔치 한마당에서 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봉협회 정기총회> (사) 한국 양봉협회 강원지회 제10차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양양문화관 대강당에서 지역양봉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색한과 전국대회 은상수상"

- 2002 한국전통식품 베스트5... 맛과 디자인 우수 -

양양지역의 전통특수식품으로 자리잡은 (주)오색한과(대표 원운문)가 지난 13~14일까지 이틀간 서울 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02 한국전통식품 베스트5 선발대회에 참가해 한과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오색한과는 이번 전국대회에서 각 시·도 예선을 거쳐 출전한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달지 않고 담백한 특유의 오색한과 맛과 세련된 세팅 디자인을 통해 은상을 수상, 농림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영광을 안았다.

추석 이전 수해로 5억6천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오색한과는 그동안 은은한 전통 한과 맛을 유지하며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각지를 대상으로 최고의 한과를 공급해 왔으며,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LA지역을 비롯한 해외수출 판로에 나서며 우리고유 한과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색한과 배기선이사는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전국대회 우수입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양지역 고유의 전통 맛을 대변하는 오색한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해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지난 19일까지 서울국제식품 전시회와 병행해 전시됐다.

"양양향교 기로연 개최"

- 김인정씨 부부 회혼상 등 5가정 표창 수상 -



<사진설명> 양양향교 주관으로 거행된 기로연 행사가 지난 6일 2백명 이상의 관내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문화원 대강당에서 흥겹게 펼쳐졌다.

양양향교(전교 박상우)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양양문화원 대강당에서 이진호 군수와 관내 노인 1백50명, 양양향교 75명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향교 기로연'을 개최하고 위안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 가정상에는 손양면 김군수씨(하양혈리) △장수상은 강현면 손덕임씨(장산리) △회혼상은 양양읍 김인정씨 부부(감곡리) △효자·효부상은 현북면 김윤주씨(하광정리)와 손양면 김국선씨(송전리)가 각각 수상했다.

양양향교 주최로 매년 열리는 기로연은 조선 태조4년(1395년)이성계가 환갑을 넘은 70세이상 원로 신하들을

기로소에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다는 유래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향교에서 이같은 전통을 이어 연례적 국가잔치로 행사를 펼치고 있다.

<p>문화유적 탐방</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color: blue;">우 리 마 을 유 래</p> <p><29> 서면 공수전리</p>
-----------------------	--

- 영혈사 -

설악산 관모봉아래 위치하며 신라 신문왕 9년(689)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조선 숙종 16년(1690)에 취원대사가 중건하고 영천이라 개칭하였으며, 숙종 43년(1704)에는 학천대사가 사찰의 북쪽 10여리에 학소암을 지었는데 순조 26년(1826)에 폐지되었으며 고종 24년(1887)에 지화, 도윤스님이 영천사를 중수하고 절의 이름을 영혈사라 하였다. 영혈사의 원통보전은 원래의 자리에서 절의 좌측 앞쪽으로 이전 복원되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 흙처마 팔자지붕의 굴도리집이며, 그외에 극락보전과 요사채, 산시각 등의 부속건물이 있다. 또한 영혈사의 입구쪽에 석종형의 8각원당형 등화강암제의 부도 3기가 있는데 모두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계의 쌍벽을 이루는 의상대사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지역에 원효대사의 사찰이 있는 것은 이지역이 과거 불교문화를 꽃피우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 귀공자같이 생긴 마을이라하여... -

<마을유래>마을의 명칭은 조선조때 관청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관가에서 정해놓고 경작하던 공수전이 있었던 연유로 유래되었다. 또한 200여년전 어느 지관이 이르기를 마을의 형국이 귀인공자처럼 생겼다하여 마을명칭이 꼭 알맞다고 전하고 있다.

- 북 골 : 마을 북쪽에 있으며 골이 깊고 암자터가 있다 함.
- 터 골 : 북골로 가는 입구에 있는 암자터.
- 양아치 : 북골로 가는 서쪽 입구에 있는 작은 고개 이름을 작은 양아치라고 하고, 마을 서쪽으로 가늘고 길게 누에나방의 촉각처럼 뾰은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서쪽끝에 영덕리로 이어진 큰 고개를 '큰양아치'라고 한다.
- 새이양아치 : 이왕골 입구 서쪽 재이름이다.
- 곤봉산 : 마을 서북간 산이다.
- 뒷 골 : 마을 서북간 골 이름이다.
- 부엉더렁이 : 북골 안에 있는 골이며 암석이 많고 폭포가 있으며 부엉새가 서식하였다하여 생긴 지명이다.
- 위연미기골 : 송천천과 공수전천의 강 건너편 골이름이다. □ 도지기등 : 수리샷갯봉으로 가는 능선이다.
- 샷갯봉 : 수리와와 경계봉이다. 마을 동남간에 있다.
- 무초골 : 마을 강 건너편 남쪽 공동묘지골이다.
- 초마골 : 무초골 남쪽에 있는 골이다.
- 쇠죽재 : 옛날 연차꾼들이 쉬면서 소죽을 먹던 곳이다. 마을 서남간에 있다.
- 질장군나드리 : 공수전리 강변 유원지를 질장군나드리라고 부른다. 마을 남쪽이다.
- 남당소 : 마을 남쪽에 있는 소.
- 매바우 : 터골 서쪽에 있는 노양이 매와 비슷한 바위.
- 아랫용소리 : 마을 앞 내의 서남쪽 상류에 있다. 아래 용숫돌이라고도 한다. □ 웃용소리 : 아랫용소리 윗쪽 상류에 있다. 웃용숫골이라고도 한다.

법 률 상 담

- 횡단보도상 손수레 충격사고-

<문> 저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동법 제3조 제2항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 사고, 개문발차사고 등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보험 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동법 제2조 제13호)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공 : 춘천지방경찰청 속초지청>

잠 / 깡 / 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단신

○...2001년도 음주사고 발생현황(전국)

- 교통사고 발생건 수 - 260,579
- 교통사고 사망자 - 8,097
- 교통사고 부상자 - 386,539
- 음주운전 발생건 수 - 24,994
- 음주운전 사망자 - 1,004
- 음주운전 부상자 - 42,165

○...음주운전시 처벌기준 (알코올 농도별)

- 사고가 없을 때 대물사고
 - 0.05% ~0.1%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입건
 - 0.1%이상 - 면허취소, 형사입건
- 대인사고 - 면허취소, 형사입건
- 음주측정 불응 - 형사입건, 면허취소(측정결과 불복시에는 혈액채취)

속초경찰서 ☎ 033)631-1118

<사회보장협정 시행 안내>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캐나다(1999. 5. 1), 영국(2000. 8.1), 미국(2001. 4. 1)과의 협정이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고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와도 협정발효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 조만간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보장협정 시행을 안내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 협력팀(☎02-2240-1082~5)이나 가까운 지사(☎1355)에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www.npc.or.kr/social/index.html)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를 예방합시다>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인체의 면역기능이 파괴되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쉽게 감염되어 감염질환, 악성종양, 신경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에이즈 예방방법

- 여러사람과 성관계를 삼갑시다.
- 성관계시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사용합시다.
- 주사기나 면도날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동성연애 등 불결한 성관계를 삼갑시다.
- 건전하고 책임있는 가정(성) 생활이 에이즈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에이즈 무료검사 : 년 중

※상담문의 : 양양보건소(☎ 033)671-8733, 670-2557)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www.egov.go.kr>

- ...11월1일 www.egov.go.kr(전자정부단일창구)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호적등·초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20종의 민원 구비서류는 관공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 ...형행법령정보, 도로소통정보, 대한민국 통계정보, 정부조달입찰, 일기예보, 우리수산물 구별법 등에 관한 정보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 033)670-2243, 2244

<진료비주고받기 캠페인>

○...공단에서는 <진료비 주고·받고·보관하기>생활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보험재정이 투명해지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신 후 꼭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지사033-671-8681

<공명선거 캠페인>

○...공명선거...

모두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깨끗한 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면서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유권자는 부정하게 표를 모으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면 공명선거는 저절로 이루어 집니다.

깨끗한 선거 - 구호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033-6713-8796

<미담사례>

겨울철을 앞두고 설악권 최대 수해지인 양양지역에 수재민들과 불우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양양고 10회 최수근씨와 이명용씨 등 동문들은 지난 19일 오전 양양군청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겨울나기용 방한복 40벌을 전달하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 구룡령휴게소를 운영하는 정선지 대표는 지난 20일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면 송천리와 공수전, 영덕, 서림, 황이, 갈천 등 6개 지역 수재민들에게 겨울잠바 60벌(1천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수해의 아픔을 달랬다.